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실태조사연구

—A Study of the Agreeability on the Use of Bedclothes—

광주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상학과 박 우 미

동신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유 명 의

Dept. of Clothing Kwangju Univ.

Assistant Prof. : Park Woo Mee

Dept. of CLothing & Tex. Dongshin Univ.

Instructor : Yoo Myung lee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고찰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greeability on the use of the bedclothes of korea.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sent to 600 mothers of students at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Seoul, Daejeon, Kwangju.

The result were as follows ;

1. The type of house greatly influences the style of sleeping and most families have a traditional korean style sleeping environment.
2. Management of bedclothes were important on comfort sleeping of the subjects.
3. The type of sleepwear, Subjects shown a greater preference for Pajama style than One-piece style.
4. The chemi-phys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mand of selection motive of bedclothes for agreeability.
5. But Psychological aspect was shown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mand of selection motive of sleepwear for agreeability.

I. 서 론

현대의 복잡한 산업구조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실정에서 수면은 심신의 쾌적감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하루생활의 1/3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쾌적성측면에서 침구류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각성시의 대사량에 비하여 수면시의 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의 70—90%이고 온열성발한량이 많은 편이다. 또 취침시의 피부온의 분포는 낮에 활동시 피부온분포와 달라서 7—13℃의 저온에서 취침직후 평균피부온은 31.1℃이고, 구간부와 말단부의 피부온간에 차이가 크나 점진적으로 취침후 1—4시간 뒤엔 전신의 피부온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 이와같이 수면시는 호흡 및 순환계, 에너지대사, 발한 체온 피부온 내분비활동 등의 생리적 현상이 각성시와 다른 현상을 보이므로 침구류의 이에 대한 배려도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

지금까지 외국에서 행해진 침구류의 쾌적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침구소재별 보온성 연구²⁾, 침구 압축성 연구³⁾, 침구별 인간공학적 온열생리적 연구^{4,5)}, 침구요구성능⁶⁻⁹⁾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침구류에 대한 인간공학적 온열생리적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외국에서 자료를 수입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침구류의 기능성 쾌적성을 부여하기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조사방법론 실험방법론을 토대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침구류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단계로서 우리나라 가정환경속에서 쾌적한 수면을 위하여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실태를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침구류 설계의 기초자료로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침구류의 실태와 소비자의 의식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 수정하여 최종설문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침구류의 의식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중부지역의 대전, 남부지역의 광주를 선택하여 중, 고 대학교에 배부하여 학생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다. 조사시기는 1989. 9—1990. 2. 월 까지로서 총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477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분석가능한 448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은 Table 1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20대, 50대 순으로 50대가 가장 적으며 결혼기간은 20년 정도로서 안정된 중년주부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형태는 현대생활의 특성으로서 대가족형태보다는 핵가족형태를 더 많이 취하고 있었다. 또 가정주부의 학력을 보면 많은 수가 중·고졸이고 다음으로 대학졸, 군졸, 무학 순이었으며 직업을 가진 주부가 32.9% 정도에 해당하였다.

2. 연구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5문항, 주택형태와 침구류관리 7문항, 수면사항 15문항, 침구류의 형태 27문항, 침구류의 쾌적감요구도, 불쾌감과 선택동기 11문항으로서 총 65문항이었다. 침구류의 불쾌감, 선택동기는 水梨등¹⁰⁾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요인 7항목, 사이즈 분재 형 3항목, 물리화학적요인 13항목, 생리위생적요인 5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쾌적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의 쾌적감요구도, 불만이 되는 항목으로서 불쾌감, 구입시의 선택동기를 항목별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요 인		인 원(%)	요 인		인 원(%)
연 령	20 대	34(7.6)	가족형태	대 · 확대가족	151(33.7)
	30 대	75(16.8)		핵 가 족	296(66.2)
	40 대	306(68.5)		주 부	297(66.4)
	50 대	28(6.2)		취 업	147(32.9)
결혼기간	5년미만	46(10.3)	학 력	무 학	3(0.7)
	15년미만	87(19.5)		국 졸	54(12.1)
	25년미만	259(57.9)		중 · 고 졸	311(69.6)
	20년이상	45(10.1)		대 학 이 상	75(16.8)

〈Table 2〉 침구류의 쾌적감, 쾌적감 요구도를 위한 요인

요 인	항 목
심 리 적 요 인	1. 색이 좋다 2. 청결하게 보인다 3. 산뜻한 느낌을 준다 4. 디자인이 좋다 5. 피부감촉이 좋다 6. 실내와의 조화가 좋다 7. 고급스러워 보인다
SIZE · 봉재 · 형	1. 봉재 · 짜임새가 좋다 2. 사이즈가 적합하다 3. 미끄러지지 않는다
물리 · 화학적 요인	1. 솜이 포송포송하다 2. 시원한 느낌을 준다 3. 솜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4. 부드럽다 5. 따뜻하다 6. 변색되지 않는다 7. 구김이 잘가지 않는다 8. 가볍다 9. 어깨가 빠근거리지 않는다 10. 적당한 탄력성과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 11. 무게가 적당하다 12. 이불에 손을 댔을 때 차가운 감이 없다. 13. 개우기가 쉽다
생리 · 위생적 요인	1. 먼지가 타지 않는다. 2. 때가 잘타지 않는다. 3. 어깨가 따뜻하다 4. 외기와의 사이에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5. 두께가 적당하다

3. 자료분석

SPSS PC*를 이용하여 CROSSTAB으로 백분율, 표준편차등을 구했고 연령 직업 결혼횟수 학력등에 의한 쾌적감 선택동기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침구류 실태

(1) 주택양식과 침구류관리실태

Table 3은 연구대상자의 주택양식과 침구류관리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일반 단독주택이 6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아파트형태, 연립주택형태 순이었으며 더불어 침생활형태도 대부분이 온돌양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40대 중년주부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근래의 서구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침생활의 전통양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양식에 따른 침구류는 대부분이 침대보다는 요, 이불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생활에서 쾌적한 수면을 위해 온돌방식의 취침생활양식에 대한 침구류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3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많은 수가 세균 번식등의 침해로 인한 위생상의 건강문제로 침구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관리의 내용을 보면 일광소독횟수는 1주에 1회씩, 15일에 1회씩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일광소독의 시기는 오전 오후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 침구의 세탁횟수는 1주마다가 29.5%, 2주마다가 28.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비교적 청결한 침구관리를 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광욕을 30일 이상에 한번씩이 9.2%, 세탁횟수가 6주에 1번씩이 5%정도에 해당하여 침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않은 경우도 있었다.

침구류의 보유실태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가 적어 삭제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침구류의 수는 8채이상을 갖고있는 사람이 많고 충진재는 목화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학솜, 명주솜의 순으로 申의 연구결과¹⁰⁾와 같은양상을 보이며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학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목화솜의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구류의 색은 요는 흰색계열이 가장 많고 색동, 검정 갈색 순 이었다. 이불은 자주, 분홍, 빨강계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색동, 미색, 주황, 노랑계열의 순이었다.

(2) 잠옷의 착용실태

Table 4는 잠옷의 착용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보면 수면시 착용하는 의복형태는 잠옷을 입고 자는 경우가 82%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잠옷의 형태는 원피스형이나 파자마형의 착용율이 비슷하지만 그 중에 파자마형을 약간 선호하고 있는 경

〈Table 3〉 주택양식과 침구류관리실태

요 인		인 원 (%)	요 인		인 원 (%)
주거형태	일반주택	269(60.2)	침생활형태	온돌	384(85.9)
	아파트	125(28.0)		침대	56(12.5)
	기타	53(11.8)		무전담	7(0.6)
관리의 필요성	있다	384(85.9)	침구의 세탁횟수	3일마다	(1.3)
	없다	56(12.5)		1주마다	132(29.5)
	기타	7(0.6)		2주마다	127(28.4)
일광소독하는 시기	오전	215(48.1)		3주마다	64(14.3)
	오후	230(51.5)		4주마다	67(15.0)
	기타	2(0.4)		5주마다	12(2.7)
먼지 털기	한다	421(94.2)		6주마다	19(4.3)
	안한다	(5.8)		6주이상	4(0.9)

〈Table 4〉 잠옷의 착용실태

구		분	인 원 (%)
잠옷의 형태	평 상 복		16 (3.6)
	원피스 형태의 잠옷		174 (38.9)
	파자마 형태의 잠옷		195 (43.6)
	속 옷		43 (9.6)
	안 입 는 다		3 (0.7)
	기 타		17 (3.8)
잠옷의 소재	실 크		49 (11.0)
	면		355 (79.2)
	마		8 (1.8)
	나 일 론		13 (2.9)
	모 른 다		6 (1.3)
	기 타		17 (3.8)
잠옷의 불편함	있 다		116 (26.0)
	불편한 이유	잠옷형태상의 불편 (레이스가 많아서 or 치마)	60 (13.4)
		재 질 · 감 촉	7 (1.6)
		사용상의 불편 (감아입기불편, 단추가자주열림)	20 (4.5)
		기 타 (SIZE)	4 (0.9)
		없 다	322 (72.0)
잠옷 착용 방법	속옷을 입는다		416 (93.1)
	속옷을 입지 않는다		22 (4.9)
소 유 량	1 벌		117 (26.2)
	2 벌		244 (54.6)
	3 벌		61 (13.6)
	4벌 이상		17 (3.8)
잠옷에 대한 태도	comfort와 관련있다(기분)		409 (91.5)
	comfort와 관련없다		32 (7.2)
	기 타		7 (1.3)
시판잠옷에 따른 만족	그 령 다		336 (75.2)
	그 령 지 않 다		103 (23.0)
	불만의 이유	색깔의 불만족	9 (2.0)
		형태의 불만족 (너무야하다, 레이스가 많다)	53 (11.9)
		품질의 불만족	4 (0.9)
		디자인 자체	8 (1.8)
		기 타 (개성, 기능, 가격)	7 (1.6)
시판 잠옷의 소재	만 족		360 (80.5)
	불 만 족		69 (15.4)
	기 타		19 (4.1)
잠옷에 대한 관념	재질 · 감촉 개선		22 (4.9)
	제품의 불량성 낮추기		7 (1.6)
	디자인 개선		9 (2.0)
	color 다양하게		()
	가격범위를 넓게		5 (1.1)
	기타 (사치조장하지 않게)		5 (1.1)

향을 보였다. 이는 잠옷의 형태면을 미적인 측면 못지않게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잠옷의 소재는 면소재가 가장 많고 실크 나일론 마의 순이었으며 소재를 모르는 경우도 1.3% 정도였다. 활동시의 대사량에 비해 수면시의 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의 70—90%로서 손등, 발등에서의 정신성발한은 정지하므로 온열성발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발한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¹⁾. 그런데 면소재는 구김회복성이 적어 형태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흡습성이 매우 좋은 소재로서 잠옷의 소재로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수면시 잠옷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경우가 있느냐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부분이 없다고 하였고 26% 정도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대답하였다. 불편을 느낀 이유는 잠옷형태상의 이유가 가장 많아 레이스가 많다는가 치마인 경우 말아올라가는 현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 외에 사용상의 불편으로 갈아입기 불편하다든가, 단추가 자주 열리는 점, 재질 감촉등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착용방법은 속옷을 입고 잠옷을 입는다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잠옷의 소유량은 2벌이 5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벌, 3벌, 4벌 이상의 순이었다. 또 잠옷이 쾌적함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5%로서 잠옷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고 70—80% 정도가 시판 잠옷의 형태나 소재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판잠옷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중에 너무 야하거나 레이스가 많다고 하는 형태의 불만족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잠옷을 선택하는 이유로 디자인, 색상보다는 촉감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이 소재였다. 이는 중년주부들의 생각이 쾌적한 수면에 잠옷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디자인 또한 심리적인 요인중 심미적인 디자인 보다 기능적이 면에 치중되어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시판잠옷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점이 재질, 감촉등의 요인으로서 쾌적한 수면에 재질, 감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¹²⁾崔의 1인¹³⁾은 거친감과 유연감등의 감촉과 쾌적감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Hollies¹²⁾와 Mehtens¹³⁾는 섬유표면의 거침이 불쾌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 침구와 수면과의 관계

수면은 활동 및 노동에 의한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기본육구중의 하나로서 수면시는 생리적으로 산열량이 감소하고 피부혈관은 확장하며 피부온은 상승하여 방열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활동시보다 인체와 환경과의 열교환이 빨리 일어나 침구류에 의해 높은 보온력을 유지해야 한다.¹⁴⁾ 이와같이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쾌적성과 함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침구류와 수면과의 관계도 쾌적성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조사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89.5%가 숙면을 하고있다고 대답하고 그외 9.2%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숙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였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경우, 이것이 침구류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에는 27.7% 정도가 관련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는 대체로 신체적인 건강이나 외부환경적요인을 제외하고는 잠을 잘 이루는 편이고 침구류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향은 아니지만 침구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침구류에 의한 불면의 이유는 『침구의 크기와 두께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질 감촉, 제품의 불량성의 순이었다. ¹⁵⁾羅에 의하면 요의 불만족도가 이불의 불만족도보다 높고 불만족하는 순서를 나열하면 요두께, 요폭, 이불두께, 이불길이, 요길이, 이불폭의 순서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서, 침구의 크기와 두께가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요의 두께나 베개의 높이등은 쾌적한 수면과 함께 목뼈나 척추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되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일본등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침구의 크기와 두께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Table 5〉 침구와 수면과의 관계(주관적인 느낌)

구 분		인 원 (%)
수 면 상 태	잘 잔 다	400 (89.5)
	그렇지 못하다	41 (9.2)
	불만	35 (7.8)
	이유	7 (1.6)
	기타(ex. 시간없음)	11 (2.5)
불면의 경우, 침구와의 관련 여부	있 다	125 (27.7)
	구체적	47 (37.6)
	이유	18 (14.4)
	기타	12 (0.96)
	아니 다	10 (0.80)
	기타	10 (0.80)
	아니 다	28 (22.4)
아 니 다		323 (72.3)

2. 침구류의 쾌적감과 구입시의 선택동기

(1) 침구류에 대한 불쾌감과 쾌적감요구도

Table 6은 사용하고 있는 침구류에 대한 불쾌감과 쾌적감 요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요와 이불의 불쾌감과 쾌적감요구도를 보면 대체로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물리화학적요인에 가장 불쾌감을 느끼며 다음으로 생리위생적요인, 심리적요인, 사이즈 봉제 형의 요인의 순으로 사이즈 봉제 형의 요인에 대한 불쾌감과 쾌적감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쾌적감요구도를 보면 물리화학적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리적요인, 생리위생적요인, 사이즈 봉제 형의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때 침구류의 쾌적성에 물

리화학적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고 일본의 경우 매트리스와 모포의 쾌적감요구도가 물리화학적 요인이 가장 높았다고 한 연구결과⁸⁾와 일치하고 羅¹⁰⁾의 이불 요 잠옷 등에 대해서 『따뜻하다』 등의 물리적인 요인이 요구성능으로 많이 대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생리위생적 요인에 대한 불쾌감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것보다 높으나 쾌적감요구도는 심리적 요인이 높다. 이는 생리위생적 요인에 불쾌감을 느끼기는 하나 쾌적감을 주는데 있어 심리적요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성 못지않게 요, 이불의 미적추구가 강조되고 있으며 근래의 침구류에 대한 패션을 반영해 주고 있다.

〈Table 6〉 침구류의 불쾌감과 쾌적감요구도

(단위 : %)

구 분	요		이 불		잠 옷	
변 인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심리적 요인	17.4	19.7	16.4	16.6	37.1	57.7
사이즈 · 봉제 · 형	10.9	3.8	12.8	4.0	17.2	6.5
물리화학적요인	41.8	59.3	41.0	66.7	27.4	24.2
생리위생적요인	21.2	11.9	23.6	8.5	12.7	2.9
기 타	8.7	5.3	6.2	4.2	5.6	8.7

(N=448)

전술한 바로는 침구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협의로서 「침구류의 크기와 두께이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Table 6에서의 침구류의 물리·화학적요인이 요구도나 불쾌감에 있어서 중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불편과 관련되지 않은 전반적인 쾌적감의 의식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나, 쾌적감에 대한 의식실태와 불편시 침구의 영향에 대한 상호관계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설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잠옷의 경우를 보면 불쾌감과 쾌적감요구도 모두 심리적요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물리·화학적요인, 사이즈 봉제 형, 생리·위생적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옷이 요 이불보다 내재적인 美가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침구류의 불쾌감 쾌적감요구도에 대한 분산분석을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불쾌감은 요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의 변인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잠옷은 주택형태변인이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불의 경우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요의 경우 연령집단간, 교육수준간에 유의차를 보인 것은 불쾌감을 느끼는 요인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다름을 의미하며 이는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의 가치관이 달라 쾌적감의 척도가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그리고 잠옷이 주택형태변인에서 유의차를 보인 것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환경조건에 따라 잠옷의 쾌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쾌적감요구도는 이불은 일광소독시간변인이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잠옷은 연령과 세탁기간변인이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불이 일광소독시간변인에서 유의차를 보인 것은 일광소독시간차에 의한 이불의 쾌적도가 달라져 일광소독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잠옷이 연령에 따른 요구도에 유의차를 보인 것은 잠옷의 심리적인 요구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쾌적감을 주는 잠옷패션의 가치관 또한 연령에 따라 다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요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2) 침구류의 구입시 선택동기

Table 8의 침구류의 구입시 선택동기를 보면 요와 이불이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물리·화학적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리적요인, 생리·위생적요인, 사이즈 봉제 형의 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쾌적감요구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잠옷은 심리적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물리·화학적 요인, 사이즈 봉제 형, 생리·위생적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쾌적감요구도와 선택동기가 요 이불 잠옷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결과로

〈Table 7〉 개인적 환경변인에 따른 침구류의 불쾌감과 쾌적감 요구도의 분산분석

구분 변인	요		이 불		잠 옷	
	F value		F value		F value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불쾌감	쾌적감요구도
연 령	2.257*	2.036	0.760	1.502	1.128	2.479*
결 혼 기 간	2.008	2.942	0.692	1.369	0.702	0.723
교 육 수 준	5.122*	1.378	1.598	0.522	1.387	0.267
직 업 유 무	0.006	0.113	1.545	0.118	2.338	0.323
주 택 형 태	2.393	2.229	0.864	1.135	3.613*	1.009
침 생 활 형 태	0.294	0.242	1.749	0.001	1.506	2.587
일 광 욕 여 부	1.027	1.393	1.123	0.959	1.869	1.306
일 광 욕 시 간	0.138	1.084	0.304	4.216*	0.497	0.482
세 타 기 간	0.730	1.038	1.056	1.596	0.315	2.040*

〈Table 8〉 침구류의 구입시 선택동기

(단위 : %)

구 분	요	이 불	잠 옷
심 리 적 요 인	25.9	24.5	35.3
사 이 즈 · 봉 제 · 형	13.6	14.0	13.4
물 리 · 화 학 적 요 인	38.9	39.8	22.3
생 리 · 위 생 적 요 인	15.6	14.9	11.1
기 타	6.0	7.8	7.9

(N=448)

〈Table 9〉 개인적 환경변인에 따른 침구류의 구입시 선택동기

구 분	요	이 불	잠 옷
연 령	1.745	2.181*	1.122
결 혼 기 간	2.138*	1.961	2.644*
교 육 수 준	2.892*	3.117*	0.624
주 택 형 태	3.071*	1.657	2.767
침 생 활 형 태	0.041	0.574	3.872

서 요 이불의 경우 물리화학적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잠옷은 심리적으로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9의 개인환경변인에 따른 선택동기의 분산 분석결과를 보면 요는 결혼기간 교육수준 주택형태 변인이 $P<0.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이불은 연령 교육수준변인이 $P<0.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는 요나 이불을 구입할 때에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 주택형태에 따라 선택동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침구류의 구입시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 주택형태요인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아울러 침구류의 설계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그 첫단계로서 우리나라 가정환경속에서의 침구류의 실태조사와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 대전 광주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477부 회수된 것 중 분석가능한 448부를 사용하여 자료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40대의 중년주부층으로 비교적 안정된 핵가족형태를 이루고 있고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많고 침대생활보다는 온돌형태가 많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침구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5.9%로 대부분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 침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비교적 깨끗한 침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잠옷의 형태는 원피스형보다 파자마형이 많아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잠옷의 소재는 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실크, 나일론의 순이었으며 보유량은 2벌이 가장 많았다. 수면시에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26% 정도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잠옷형태상의 이유가 가장 컸다. 또 시판잠옷의 개선점으로 감촉 재질의 요인을 들어 쾌적한 수면에 감촉 재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4. 침구와 수면과의 관계는 침구와 수면이 관계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7.7%로서 침구에 의해 불편을 느낀 이유를 『침구의 크기와 두께때문이다』라고

하였다.

5. 요와 이불의 볼패감, 쾌적감요구도는 물리화학적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리위생적요인, 심리적요인, 사이즈 볼패 형의 순이었다. 그리고 잠옷은 심리적요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물리화학적요인, 사이즈 볼패 형, 생리위생적요인의 순이었고 구입시 선택동기 또한 쾌적감요구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6. 개인환경변인에 따른 침구류의 분산분석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주택형태등의 변인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중년주부층은 한옥의 전통적인 주택양식에서 쾌적한 침구생활을 위해 침구관리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침구류의 요구성능으로서 물리화학적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침구류의 형태 즉, 잠옷의 형태와 촉감 재질, 침구류의 크기와 두께 등이 쾌적한 수면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공학적인 침구류 설계시 물리화학적 요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근래의 침구의 패션화를 의식하여 심리적인 요인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요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심부자역, 의복위생과 착장, 태화출판사
- 2) 越智義治, 布團わた消費性能, 岡山女短大紀, 3 (1980)
- 3) 장화자, 침구재의 적성에 관한 연구 : 제1보 압축탄성에 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8, 199-212, (1970)
- 4) 川昌 川村一夫, 纖維枕の壓縮特性に関する研究, 織學誌, (1960)
- 5) 김명주, 최정화, 수면시 침상기후와 인체생리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 2, 77-88 (1991)
- 6) K. H. Umbach, Comparative thermophysiological tests on blankets made from wool versus acrylic / cotton, Proco. 7th Inst. Wool Text. Res. Conf. 3, 242-253, (1985)
- 7) E. A. McCullough, P. J. Zbikowski and B. W. Jines: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the Insulation provided by bedding system, ASHRAE Trans., 93, 1055-1068, (1987)
- 8) 水梨サワ子의 3인,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1報), 織消誌, 13, 7, 274-281(1972)
- 9) 松本記代子, 在間辛子,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 聖母女短紀, 3, 17-25(1969)
- 10) 신상무, 침구류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1) 최철호, 박우미, 피복재료의 물리적특성과 주관적 착용감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0, 2, 29-36, (1986)
- 12) N. R. S. Hollies,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mfort in cotton apparel fabrics, Hollies research laboratory, Inc., 1-42, (1966)
- 13) David G. Mehrtens, Fiber properties responsible for garment comfort, Tex. Res. J., 32, 658-665 (1962)
- 14) 나영주, 수면환경의 제반요인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